민주, '안풍' 막을 당 혁신안 어디 없나요

지도부, 혁신 의지 강하지만 속도 낼 구체안 없어 고민

安 의식 지나친 외연 확대…전통적 지지층 잃나 우려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안풍'(安風·안철수 바람) 차단을 위해 당 혁신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혁신 방향을 놓고 당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기 나오면서 혁신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진창을 마다하지 않고 헤쳐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틀 전 호남을 찾아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고, 21일에는 당의 상임고문단에게 계파주의 청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관계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경쟁이 본격화한 만큼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천 개혁으로 참신한 인물 발굴에 힘쓰겠다. 지자체장에게 외유 제한을 가하는 등 혁신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 선언만 나오고 있을 뿐 당이 공천 개혁방안이나 계파주의 청산 방안, 신당으로의 이탈 방지 대책 등을 선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도 "개혁공천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사한 '중도층 공략'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정체성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안 의원을 의식한 지나친 외연 확대 시도로 전통적인 지지층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당 지도부가 제시한 '햇볕정책 2.0' 수립을 두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 진행된 김 대표와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에서 한 참석자는 "햇볕정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북한의 모든 잘못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의원은 이날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정책 등에서도 '실사구시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당이 원칙 없이 선거 등에서의 이익만 좇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 호남 의원들은 전날 밤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농협 수련원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6·4 지방선거를 앞둔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방선거 승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 호남 지역 의원 26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했으며, 호남 의원들이 당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한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공천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수단 격려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22일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 인사하고 있다.

연탄 배달하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

"민주 호남 위기 극복 투명공천 절실 첫 여성 원내대표 도전…꿈 이루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2월 임시국회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심의할 때 깐깐하게 따져봐서 그 법으로 인해 나타날 피해나 허점을 점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법사위가 너무 까다롭게 법을 심사한다고 불만을 표시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인 '상성특검'이 마무리 단계인데 기구특검이냐 제도특검이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민주당의 양보로 제도특검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라며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만 해결하면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지방선거에 대해 박 위원장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선거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안철수 신당'도 앞서 말한 인물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천을 공명정대하게 하면 (호남 등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크게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현재는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야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밝힌 뒤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성 대통령 시대에 민주당도 여성 원내대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말정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끝까지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손회사 설립시 지분율 100% 투자조항을 만든 것은 대기업집단이 회사를 더 이상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분명 3~4년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식 전 의원 安신당 합류

새정추 오늘 목포서 뉴 지방자치플랜 발표…안철수 참석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 측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2일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위원장단에 합류시키고, 23일에는 목포에서 뉴 지방자치플랜도 발표하기로 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하고 24일부터 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 의원의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새정추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안 의원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창당 준비를 위해 실무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창당준비단'도 구성키로 했다.

안 의원과 새정추는 또 23일 목포를 방문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등 호남 공략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새정추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정부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의 발제로 지방자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새정추는 또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김대중 기념관' 방문에 이어 목포 동부시장도 찾아 민생탐방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111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와 신당 창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 내일 회동…어떤 말 오갈까?

야권연대·정당공천 폐지 논의 주목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두 사람이 별도의 회동을 하는 것은 지난해 9월12일 안 의원이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김 대표를 찾은 이래 4개월여만으로, 안 의원이 '3월 신당 창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24일 낮 여의도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양측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차 태릉선수촌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진작부터 인사를 건넸었는데, 마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고 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제가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탄배달 봉사활동차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연락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는 회동의 직접 고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이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6·4 지방선거 연대 문제도 자연스레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야권연대 문제는 전혀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은 안 된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서구 치평동 신축건물 매 75억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3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8층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융9.5억 포함, 직영수입 월천만)
▶월계동LC타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렌차이즈 적합)
▶서구 아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융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5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404㎡ 매매 8억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1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41억
▶북구 용두동 1종주거지역 나대지 2,050㎡ 매매 6.9억
▶화순 동면 계획관리지역 전, 임야 17,200㎡ 매매 2.5억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